

# 牛峯李氏大宗報

發行人兼編輯人：李 隨 寧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2  
 印 刷 處：相進印刷社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48-2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 전통가문에 긍지를 심자

### 6대회장에 東峰 隨寧 회장 선임 도유사엔 丙天 종무위원을

----- 지난 11월2일(음 10. 1) 정오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신흥사 입구)에 위치한 취선 -----  
 -----장에서 1986년도 우봉이씨 대종회가 개최되었다. -----  
 -----이날 개막된 대종회는 임원개선에서 현 회장인 隨寧번호사를 대종회 회장으로 -----  
 -----선임하여 유임시키고, 도유사에 丙天종무위원을, 고문에 鳳九부회장을 그리고 부 -----  
 -----회장에 전 건설부 초대 지리원장이었던 丙七씨와 유사에 茂學씨 그리고 3 명을 -----  
 -----종무위원으로 선출하고 전원을 유임시켰다. -----



隨寧 신임회장



鳳九 신임고문



丙七 신임부회장



丙天 신임도유사

예년에 비해 120명(등록기  
 준)의 많은 회원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고문인 두계 병도박  
 사를 비롯한 수녕회장 그리고  
 봉구·병욱부회장과 각 지역의  
 회장인 茂鴻(대구)·大寧(대전)  
 壬九(황성), 夏寧(문경)씨와 일  
 가들 그리고 특히 여자 일가  
 까지 참석하여 이채를 띠었다.  
 이날 회의는 식순에 의해 건  
 념 장재유사(감녕도유사불참)  
 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먼저 시  
 조에 대한 北向望拜에 이어서,  
 회장의 인사와 경과보고(진녕)  
 감사보고(병부) 그리고 회장  
 및 부회장·임원 선출이 있었  
 다.

임원선출은 丙玉부회장이임  
 시회장으로 추대되어 丙務·丙  
 吉·丙泰·基寧·茂學제씨를 전  
 형위원으로 하여 회장 및 부회  
 장과 종무위원 추천을 받아 다  
 수가결 선거방법으로 실시되  
 었는데, 만장 일치로 고문 회  
 장, 부회장, 도유사 그리고 신  
 임 종무위원 3명을 추가로 선  
 출하였다.(명단별첨)

임원개선이 끝나자 회장에  
 재선된 隨寧회장은 “우봉이씨  
 종중의 열성적인 대종회 운영  
 에 힘입어 유임된 영광을 일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고 전제  
 하고 “회장재직기간 우봉이씨  
 의 전일가 가구수에 대해 생각  
 해 보았는데 이번 대종회 발  
 중에서 몇해 전 파악된 주소인  
 데도 백여세대주 중 20여통만  
 이 되돌아 온것을 보고 우 리  
 일가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잘  
 들 살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일가 가수가 4천 내지  
 5천여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되며 또 해마다 대종회 참석자  
 가 평균 1백여명이나 되고 있  
 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회장은 “우봉  
 이씨하면 옛전통가문의 집안  
 이 아니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나는 그럴 때면 두계

어른을 추켜 이병도박사도 모  
 르느냐고 힐책하듯 따지면 금  
 새 아라차리곤 하는 데 대종  
 회 때 마다 참석해 주시는 병  
 도박사님이야 말로 우봉이씨  
 의 얼굴이 아니겠느냐”고 말하  
 여 일가친척들의 박수를 받았  
 다. 끝으로 수녕회장은 “우봉  
 이씨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은  
 이처럼 높아 모든 일가가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집안일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 대종회  
 가 우봉이씨 집안을 발전시키  
 는 기틀의 핵심이 되자”고 역  
 설하였다.

회장인사에 이어 종친간의  
 인사(임원)와 의견교환이 있었  
 는 데 丙玉부회장은 회비증식  
 문제를, 茂鴻(대구회장) 씨는

### 특별찬조등 관심도 높아

대종회 참여도 여성회원도 다수 참석

지난 11월2일 대종회 모임  
 당시 서봉 東寧 명예회장을 비  
 롯한 많은 회원이 당회 운영을  
 위해 써달라고 특별찬조를 하  
 여 대종회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12명의 회원이 특별찬조 한  
 금액은 9십8만원으로서 20만

원 이상 특별찬조한 회원은 東  
 寧 명예회장과 隨寧회장 그리  
 고 壽寧(義城 유도회비안지부  
 장)씨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이날 특별찬조한 회  
 원명단은 다음과 같다.(접수순)

- 丙七(부 회 장) 20,000
- 隨寧(회 장) 500,000
- 丙吉(종무위원) 20,000
- 鳳九(고 문) 20,000
- 健寧(장재유사) 20,000
- 茂學(종무위원) 20,000
- 漢九(회 원) 20,000
- 丙鎬(종무위원) 20,000
- 壽寧(의성 유도회 비안지부  
 장) 200,000
- 丙蕪(고 문) 10,000
- 東寧(명예회장) 200,000
- 元茂(종무위원) 30,000

### 신년하례회

종무위원들 모임갖고  
 우석·두계 어른도 뵈워

지난 1월2일 오전 대종회  
 신년하례회가 東峰회장에서  
 종무위원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하례회는 丙天도유사  
 의 안내로 회장택을 방문 점심  
 식사를 나누며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고 대종회 사업전망을  
 계획하였다.

특히 도유사가 本支萬世 휘  
 호를 대종회에 전달하여 집안  
 의 번창을 약속하였으며 가문  
 의 휘호도 회장에게 전달하였  
 다.

한편 가훈인 忠厚謹愼에 대  
 한 丙泰(大宗報主幹) 씨의 설  
 명을 들었다.

이에 앞서 두계 병도박사택  
 에 방문하여 새해 세배를 드렸  
 으며 오후에는 愚石 昌九박사  
 택도 방문하여 세배를 드렸다.

### 집안 문중모임 명칭정립필요

최근 대종회 운영에 활발한  
 움직임과 때를 같이하여 대구  
 를 비롯한 청주, 대전, 문경, 황  
 성에서는 일가모임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각처에서 문중  
 별로 모임을 갖고있으나 가족  
 친척모임이나 다름 없었던 데

시조제사에 대한 의견을, 基寧  
 (종무위원) 씨는 우봉이씨 편람  
 제작에 따른 협조 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는 오후  
 3시 회식을 끝으로 폐막 하였  
 다.

그런데 이날 개선된 임원과  
 대종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  
 다.

- 대종회 임원명단  
 (1986년도)  
 고 문 : 昌九(학술원 자연  
 과학부회 원로회  
 원)  
 鳳九(안국화재 헤  
 상보험(주) 신화  
 대표)  
 丙蕪(학술원 인문  
 과학부회 원로회  
 원)  
 명예회장 : 東寧(학교법인 성  
 균관대학 이사장)  
 회 장 : 隨寧(변호사 제일  
 은행 고문)  
 부 회 장 : 俊九(사업자영)  
 丙玉(사법서사)  
 丙疇(동국대학교대

- 학원장)  
 丙文(아세아시멘트  
 (주) 회장)  
 丙七(전 건설부 지  
 리원장)  
 감 사 : 丙務(안국화재 (주)  
 상담역)  
 甲寧(두산한의원  
 대표)

- 도 유 사 : 丙天(서예가 尚德  
 書法會員)  
 장재유사 : 健寧(영보직물대표)  
 유 사 : 茂學(안국화재보험  
 (주) 전보사 대표)  
 대종부주 丙泰(국방부전사원  
 간 : 찬위원)  
 종무위원회  
 의 장 : 隨寧  
 부회장 : 丙吉 基寧  
 위 원 : 丙務 丙善 丙錫  
 丙德 丙泰 丙天  
 丙珣 丙鎬 丙南  
 權寧 基寧 健寧  
 昇寧 甲寧 萬寧  
 德寧 俊寧 樂寧  
 泰寧 元茂 茂學  
 茂卓 明俊 昌茂

### 86년도 대종회 결산

총 수입금 8백7십만원

지난 11월2일 대종회에서  
 밝히던 대종회의 1986년도 결  
 산내용은 총 수입금이 8백7십  
 만 6천8백27원으로 지출금은  
 4십8만원으로서 6백4십4만 9  
 천1백77원이 남았다.

이중 고정수입을 제외한 찬  
 조금이 8십5만원 그리고 지출  
 산내용은 총 수입금이 4십8만  
 원이 있어 부조금이 4십8만원이  
 었다.  
 1986년도 결산보고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1986年度 決算報告書

1985(음) 10. 1~1986(음) 9. 30

收 入 金	支 出 金
1985년. 음 9. 30 前	總會通知書發送 68,000
總 殘 額 4,493,113	總 會 食 代 630,000
房 賃 入 金 1,290,000	“ 보 계 기 73,200
宗務委員月會費 1,000,000	宗 報 發 刊 代 650,000
總 會 會 費 510,000	1 回 200,000(발행 1,000부 발행)
利 子 563,714	2 回 350,000(2,000부 발행)
贊 助 金 850,000	원고代 100,000(편집·조사자료 기타)
隨 寧 會 長 500,000	宗務委員會食代 277,500
丙玉副會長 300,000	계산세및오물세 53,950
命 九 50,000	新年歲拜次費用 25,000
計 850,000	扶 助 金 480,000
	丙文화환 80,000
	權寧回甲 50,000
	永範吊花 30,000
	權寧吊花 30,000
	會長역자 50,000
	丙疇위원 100,000
	丙瑛吊花 40,000
	元茂 “ 50,000
	鳳九 “ 50,000
計 8,706,827	小 計 480,000
	計 2,257,650
	※ 殘 金 6,449,177

지역사회 단체로서 각광을 받  
 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대구(회장·茂鴻)와 청주(회장  
 丙玉) 대전(회장·大寧) 문경  
 (회장·夏寧)에 이어서 황성에  
 서도 壬九씨를 중심으로 우봉

이씨형성회가 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종회에서도 지  
 방 종친회에 대한 연관관계를  
 재검토할 단계에 있으며 특히  
 지방 문중의 명칭에 대한 정립  
 이 요구되고 있다

# 단군조선은 神話 아닌 史實

## 斗溪 丙齋박사 고대사연구에 획기적 예고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원로 丙齋박사(91·고문·학술원 원로회원)는 고대사의 핵심이 되는 단군조선 시대에 대하여 신화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견제하고 이것은 史實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최근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사의 재검토론과 함께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말살과 일본의 역사왜곡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조선일보와의 특별기고 및 인터넷에서 「단군 및 단군조선을 신화로 규정하고 한국사 서술에서 제외하고 한국 고대사의 폭을 축소한 일본학자들의 연구는 비판받아 할 것」이라고 말해 술한 미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고대사연구에 획기적 변화를 예고 하였다.

특히 삼국유사의 단군 기제서 다른 책에서 뒷받침받지 않았으므로 믿을 만한 것이며 一然의 창작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一然이 인용한 古記도 김부식이 인용한 古記와 一致하는 바가 많으므로 記는 당시 분명히 있었으나 김부식이 仙人王儉과 都邑地를 平壤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기록에는 檀君史記가 분명히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역대 왕조에서는 朝議에 의하여 建廟 奉祭祀했던 것이다. 만일 단군이 하나의 전설 신화에 불과했다면 위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뵘든 단군과 단군조선에 관한 記載는 속대도 남을 지언정 신화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 논단

지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원·가훈 전시회에서 문중가훈이 선발되어 100여점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우봉이씨 집안의 가훈은 忠厚 謹慎이다.

충 후 근신이란 성실하고 인자하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안의 가훈에 대해서는 이미 3백여년 전부터 문중의 가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것이 고증이 되고 있다.

우봉이씨 집안은 이처럼 가훈에서 엿볼 수 있듯이 독특한 지체를 갖고 전통을 쌓아왔다.

즉 도암선조께서 지으신 충헌공 행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선조께서는 자제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충 후 근신이 가법이라 하셨다.공은 풍족한 녹을 받았어도 사치하지 않고 비술을 떠나 농사를 지을 때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이름이 알려질까 보아 조심하였다. 남과 사귄 때는 속일 줄 모르고 정성껏 진실하게 대하였다. 또 친척 중 서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타일러 감화된 사람이 많았다. 선조께서는 작은 비술을 할 때부터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일지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도와 주었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하느라 살아 남는 사람이 많았다. 한편 인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밥한술 뜨는 사이에도 있는 일없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나라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요...”

충헌공선조는 1629(인조 7)년에 나서 1688(숙종 14)년에 돌아가신 15대 선조로 함자는 숙(肅)이요 호는 일휴정이다.

가훈이란 그 집안의 얼굴이어서 가문과 같다. 가문이란 조상들의 생활에서 이룩된 전통적 사실이 쌓여 독자적으로 형성된 문법이다.

병자호란 때 심양으로 끌려 갔다가 귀국하였으며 벼슬은 집의, 경상도관찰사, 대사간, 이조판서, 영의정을 지냈다. 지금도 대구 상덕사에서 제향하고 있다.

일휴정선조는 가훈 그대로

# 집안의 가훈

## — 忠厚 謹慎의 뜻 —

글 · 丙 泰 (주간)

해동하신 선조임을 엿볼 수 있다.

가훈이란 그 집안의 얼굴이어서 가문과 같다.

가문이란 조상들의 생활에서 이룩된 전통적 사실이 쌓여 독자적으로 형성된 문법이다.

우리집안은 이처럼 독특한 지체를 갖고 이어져 왔다. 어느 소종중사람은 이 가훈이 일부 소종중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충헌공행장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휴정선조께서 자제들에게 충후근신이 가법이라하신 내용에서 볼 때 이 가훈은 이미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 온 우봉이씨의 가훈임을 알 수 있다.

본래 ○○파란 구분은 그 집안의 자손들이 널리 퍼져 집안의 구별이 어려워 편의상 식별하게 된 것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할아버지 자손이 된다. 이것을 모르고 오늘에 와서 남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두계박사와 관향을 같이하는 동성인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하였다.

# 同姓人은 한그루 나무와 같다

즉 한시조에서 파생하는 죽인은 일가라 부른다.

대중보 편집방침도 이러한 과별의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 어느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느 문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회에 부연해두고 싶은 것은 예를 든다면 거리가감에 있는 의열공파가 아닌 의열문중 또는 참관공 문중 식으로 표현하여 일체감을 갈도록 하고 있다.

어느 뜻있는 종무위원이 전통적 집안의 가훈을 편액으로 만들어 집안에 걸어 놓은 것을 아들이 가훈전시회 용모하여 훌륭한 집안의 가훈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흐뭇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이 기회에 다시한번 집안의 가훈을 되새겨 보고 이 전통적 집안의 문화유산들을 더욱 빛낼 수 있게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동봉 수녕회장은 법조계 중진

## 갑녕 전도유사 많은 공적 남겨

이번 총회에서 재선된 수녕회장은 1915년생으로 경성법전(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어

가정에는 李金수(47) 여사사변호사를 시발로 그동안 제일은행법률고문과 법률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사리판단이 정확하고 수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을 엿볼 수 있고 후덕을 지니고 있다는 중론이다.

가정에는 愼宰順(73세) 여사 사이에 4남을 두고 있다.

丙天도유사는 1934년생으로 위국어대학 중국어과 출신으로 공무원(서울시청) 생활로 출발하여 그동안 서도에 깊은 조예가 있어 꾸준한 연마끝에 제

2회 무동예술타전에서 특선으로 입상한 경력과 함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예가이다.

한편 甲寧 전 도유사는 대종회가 체계화되어 운영하기 전부터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중진간의 친목을 비롯한 선조성묘순례, 대종회 재산확보 및 증식 대종회운영의 체계화 등 1979년(규약시행기준)부터 6년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임하였다.

갑령씨는 다시 대종회 감사로 선출되어 대종회운영 감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행은 수안보에서 일박한 후 오전 10시경 충북 증원군 엄정면 신만리 죽동에 잠들고 계신 文敬公(采) 선조와 그 아들 文貞公(輝正) 묘소를 찾았다. 엄정면에서 얼마 못가서 봉고차에서 내려 15분쯤 산골자구니 오솔 길 따라 가니 조선석 기와집 몇채가 있었다. 그뒤로 동산을 이룬 양지바른 묘소에는 이끼 낀 비석과 망부석 등이 권세가의 무덤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文敬公은 도암선조의 손자로 弘幹公 濟遠의 4형제중 막내아들로서 둘째인 牧使公(禾)에게 輝正 선조를 입양시켰다.

文貞公(輝正)은 이조판서를 지낸후 나이가 많아 물러나서 奉朝賀의 우대를 받으신 선조 이시다.

일행은 이와 같은 내력을 찾아가며 다시 횡성의 목계리로 차를 몰았다.

목계리에는 斗峰公(吉培) 大司諫公(塚) 선조와 翰林公

(塘) 선조가 계신 곳으로 한림공 자손들이 터를 잡고 부촌으로서 집안을 번성시켜 서울 천호동(당시 광주군)에 모셨던 斗峰公을 이장하여 3형제중 막내아들이 계신 이곳으로 옮겨 모신 곳이다.

목계리는 그만큼 번창하여 대사간을 지낸 堦(垈) 선조까

받고 마지막 코스인 용인으로 출발하였다.

용인군 이동면 천리는 감찰공 문중 자손들이 번창한 곳으로 이를 증명하여 주듯이 귀락당공(晚成)·영의정공(有謙) 일휴정공(肅) 호조판서공(晚昌) 그리고 집안의 자랑인 도암(紱) 선조의 묘소가 있는 곳이

일깨우게 하였다.

4대가 양지바른 동산에 모여서진 묘소는 용인군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특히 감찰공문중에서 도암선조가 지으신 일휴정 행장에서 가훈이 忠厚 謹慎이라 밝히고 있다.

일휴정선조는 겸손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남에게 구걸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금언과 집안의 화목을 일깨우셨다고 하였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엔 배풀어 주고 나라에 충성하는 말을 늘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은 끝내 도암선조를 받게 되었다.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도암선조는 집안의 얼굴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보는 물론 사례편람은 판순상제의 풍습으로 전통문화를 갖게 하였다는데 집안의 긍지가 다시 살아나는 듯 하였다.

마지막 코스에서 배례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 섰을 때는 서너의 황혼이 깃들 무렵이었다.

한사람의 낙오도 없이 강행군에도 굳건하게 앞장서 주셨던 元九 회장과 隨寧 변호사님의 정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선조 묘역을 돌아보면서 대종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는 현재 보존되고 있는 묘역 주변의 정비작업과 조상 묘역 토지 소유권확인 정리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대종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이 행장에서 일휴정의 인품을 엿본다. 이러한 엄한 교육을

# 선조의 닻을 찾아 500리 ③

## 목계리의 전설·용인의 지방문화재

지 모셨다.

목계리에는 한림공이 반구정을 지어 시인 목객을 불러들린 선비마을로 이름마저 먹물에 개천이 겹다하여 목계리가 되었다는 전설을 남기기도 한 곳으로 유명하다.

때마침 丙德(종무위원·대한 도시까지 부사장) 종숙이 서울서 내려와 있어 점심까지 대접

다.

신입사화대 옥사당한 귀락당공은 이조참의, 대사성, 이조참판, 경기도 관찰사, 형조판서를 지내신 선조로 병조판서때 노론으로서 忠肅의 시호를 받으셨다.

귀락당집의 저서까지 내었으며 천리입구에 송덕비가 퇴색된 채 지난 세월을 다시한번

국사상 우봉인 글: 丙鍾(방송인)

耦船公(尚迪)과 歲寒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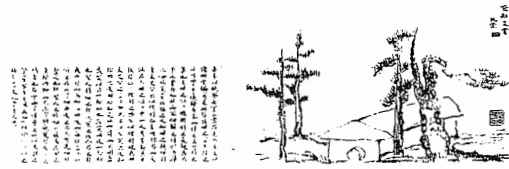
제자가 훌륭하면 스승도 훌륭하다.

耦船公(尚迪 1804-1865)은 문종 丙外郎公 자손으로 延稷의 아들이다. 字는 惠吉 號는 藕船으로 조선조 현종 때 역관으로 출발하여 윤양군수와 지중추부사의 판직에 올랐으며 섬세하고 화려한 문장으로 명가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 나라의 외교사절로 열 두 차례나 중국에 왕래하면서 吳崇梁 등 많은 중국문인들과 교유를 맺고 중국에서 시문집을 낼 만큼 글과 그림에 뛰어났으며 고완·금석·묵직에 조예가 깊었다.

공의 우아하고 청순한 성품과 변할 줄 모르는 절개는 秋史(阮堂) 김정희선생의 歲寒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세한도는 秋史가 59세 때 그린 작품으로 그 가치는 오늘날 동양삼국에서 전후무후한 것으로 높이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세한도가 공을 위해 그려졌다는 것은 우리 가문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세한도는 오른 쪽에 노승 두 그루와 그 밑에 허름한 집 한 채, 그리고 다시 잣나무 두 그루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주사가 지조가 높은 공을 위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이는 논어의 “쓸쓸한 겨울

“...그대와 나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나와 나의 관계는 내가 귀양 온 후에도 변함없는 그대의 보살핌에 더욱 감사한다...”고 말한 글귀에서 공의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이 세한도는 공이 청나라 연경에 가지고 가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연경의 학자이며 관리인 및 위경이 배푸는 연회에서 공은 세한도를 보이니 많은 학자·시인들은 한결같이 감탄하였다. “제자가 훌륭하면 스승도 훌륭하다더니 과연이로다” 그들은 스스로 발문을 써 칭

도암 선조의 사례편람 예가인 우리문중 자랑

우리나라는 옛부터 東邦禮儀之國이라는 별칭으로 일컬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지체높은 양반가문에서는 예의를 으뜸으로 지켜 왔다. 특히 우리 우봉이씨 문중은 조선조 때는 禮家로서 공인되어 왔으며 또한 이를 우리선조들께서는 자랑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영향은 이조 성리학의 대가이신 文正公(陶庵·梓)선조께서 지으신 四禮便覽이 말하듯 禮의 大家인 데 연유한다.

四禮便覽은 冠婚喪祭 즉 四禮의 의식과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된 책으로서 당시 당색과 각문중의 구별없이 사례의 식절차에 있어 표본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례는 살아지고 혼례는 새로운 형태로 상례는 간편하게 양식화되어 사례편람에 기술된 예의 원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祭禮에 있어서는 다행히 흔적이 남아 있어 비록 그때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에 제례중 忌祭에 대한 것을 정확히 살펴 볼 필

절에도 송백은 다른 나무와 달리 항상 푸르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며 제목은 歲寒圖로 낙관에 藕船是賞 阮堂이라고 써 있다. 공은 주사의 제자로서 세한도 발문을 사 밝힌바와 같이

요를 느끼게 되어 사례편람과 廣禮覽을 참고로 하여 약속하고자 한다. 四禮便覽의 忌祭節次는 參神·降神·進饌·初獻·進獻·終獻·侑食·闔門·啓門·辭神·納主·徹의 순서로 진행되는 데 祠堂을 모시지 않는 지금은 進饌과 納主의 예식은 생략하게 되며 神位와 神主가 아닌 緝傍으로 모시게 됨으로 降神을 먼저하고 參神을 나중에 한다. 神位는 北座南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위는 북좌남향으로 모신다.

가옥구조상 곤란하더라도 神位는 北座南向으로 한 것으로 예상하고 忌祭도 한분만(父의 忌日에는 母의 忌日에는 母만 祖父母이상도 같음) 모신다. (晦府은 두분모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함) 降神은 주인이 곁에 앉아서 분향을 하고 집사가 술잔을 갖기 하고 주인 좌측에서 다른 집사는 술병을 들고 주인 우측에 곁에 앉아 술잔을 주인에게 주면 술병을 갖은 집사가 술을 따른다. 이때의 주인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잡고 芽砂위에 따른 뒤 술잔을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술병과 술잔을 받아 제 자리에 놓고 정위치에 가면 주인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한다.

올바른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제사법

글: 健寧(장재유사)

서 왼손으로 잔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芽砂위에 三祭(술을 세번 조금씩 따른다)를 하고 이를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이 잔을 받아 제위에서 놓고 주인이 엎드렸다 일어나서서 뒷거름으로 물러나면 집사는 炎肝(구운 간)을 올리고 [최근에는 구운 쇠 고기를] 많이 쓴다 이적(炎)은 羽毛鱗이라고 하여 닭·소·등의 고기나 생선등을 初·進獻 때 각각 쓰기도 한다.]

수저를 세번 올리는 것 예가 아니다.

그다음 밥그릇 뚜껑을 열어 그릇앞에 놓고 수저담는 그릇에 있는 수저를 대접에 걸쳐 놓는다(간혹 箸箸라고 하여 수저를 세번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禮가 아니다) 이어서 祝官이 祝柏을 갖기 하고 주인 오른 쪽에서 있다가 동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주인과 참석자가 엎드려 곡을 한 후 주인은 재배한다.(최근에는 묵념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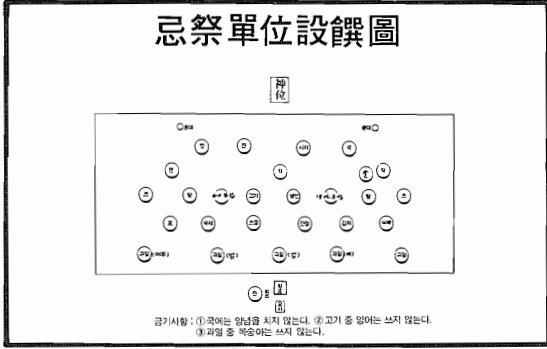
다음 집사는 神位앞에 있는 술을 退酒 즉 다른 그릇에 따르고 술잔을 제자리에 놓고 술을 드러낸다.(초헌때 올린 적을 드러내지 않고 중헌때까지 계속쓰는 수가 많다.)

進獻은主婦가 하는 데 主婦가 참석하지 않은 때는 주인 아들이나 형제중의 웃사람이 한다.) 방법은 초헌 때와 같지만 축문은 읽지 않는다. 終獻은 兄弟중에 어른이나 주인의 아들 또는 가까운 친척이 한다. 이때 술잔을 올리는 것이나 적을 올리는 것은 進獻때와 같지만 술과 적은 치우지 않는다. 侑食(侑酒혹은 慘飮)이라고도 한다.)은 주인이 술병을 들고 神位앞에 술잔을 채우고 물

리나면 主婦는 밥그릇 가운데 수저를 꽂고 물러선다. (主婦가 없을때에는 주인이 한다.) 이때에 모두가 재배(주부나 부녀자는 네번 절을 한다)를 하고 祝官은 闔門(병풍을 들어서서 뒷거름으로 물러나면 집사는 炎肝(구운 간)을 올리고 [최근에는 구운 쇠 고기를] 많이 쓴다 이적(炎)은 羽毛鱗이라고 하여 닭·소·등의 고기나 생선등을 初·進獻 때 각각 쓰기도 한다.)을 하면 모두가 제 자리에 서고 神位가考일 때에는 主人이 妣일때에는 主婦가 국그릇을 꺼두고 羹수를 올리며 밥에 꺼왔던 수저를 냉수그릇에 담근다. (이때 抄飯이라고 하여 밥 세술가락을 냉수에 떠 넣는 경우도 있으나 尤庵은 이것은 禮가 아니라 하였다.) 잠시 후 주인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마주보며 국궁고두(허리 굽히고 손을 마주잡고 눈썹까지 올린다)을 하면서 利成을 고한다.

상중 때와 같이 엄숙한 분위기로

집사는 밥 뚜껑을 덮고 수저를 내려놓고 제자리에 가서 있으면 주인이하 모두가 재배(부녀자는 네번)하는 것으로 辭神을 하고 지방과 축문을 불사르며 饗盤과 시침을 거두는 것을 徹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祭儀는 끝난다. 도암선조께서는 제의의 비용을 많이 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집안 형편껏 하고 또한 제사날 집안이 모여서 즐겁게 답소하는 것을 삼가고 상중때와 같이 엄숙한 분위기를 갖어야 한다고 하였다.



參神은 주인과 참석자가 재배(부녀는 네번 절한다) 한다. 神獻은 주인이 제상앞에 나가 서고 집사한사람은 술병을 갖고 우측에 선다. 주인이 제상위에 神位앞에 있는 잔을 가지고 동쪽을 향해 서면 집사는 서쪽을 향해 서서 술을 따르고 주인은 술을 받아 본래 있던 神位앞에 갖다 놓고 神位를 향해 곁에 앉으면 집사가 神位앞에 술이 담긴 잔을 갖기 하고 와서 곁에 앉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은 이를 받아

實錄

# 유모 김씨 전

晚梅堂有謙 作

편집자주: 만해당(유겸) 선조는 9세 감찰공(기)의 5대손으로 황해도 관찰사 지신의 아드님이다.

공은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이끄러 강화도에서 싸우다 부인과 아들(흡) 및 두며느리를 잃었다.

趙守論, 金長生의 문인으로 호조참의를 지내고 후에 영의정에 추서되었다.

만해당의 乳媪金姓人傳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후 우리나라 서울지방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고 사대부 집안으로서의 당시 상황을 직감할 수 있어 전문을 쉽게 우리글로 고쳐 게재하였다.

병술년(1586) 가을 7월 19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5남매 중 막내둥이로 난 나를 키우는 데 젓이 모자라 걱정하시다가 종가에서 성품이 온화하고 근실하며 충직한 여자를 골라 내 유모로 삼게 되었다.

성은 김씨로 해주사람이었는데 설흔재 나이로 남편과 나 같은 아들이 있었다.

유모는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나를 맡게 되자 남편과 자식도 모르고 나를 자기품에서 떼어 놓지 않고 정성껏 키웠다. 내 나이 세살인가 네살 때

친연두에 걸린 나를 밤낮으로 목욕재배하고 병간호는 물론 음식까지 씌어 먹일 만큼 정성을 다해 주었다.

임진란이 일어나던 해 나는 일곱살이었다.

이때 고양군집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며슴들은 제갈길로 흩어져 피난가 없고 집은 폐화되고 재물마저 탕진되니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흥복산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식량이 떨어져 문안으로 들어가 식량을 구해 올 사람이 없자 유모는 남장을 하고 성안으로 들어가 쌀 여덟말을 이고 왔다. 이 광경을 본 주위사람들은 유모를 보고 건장한 장부라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장사라 불렀다.

왜적이 문안에 들어온 이후 왜적은 3진으로 나누어 一진은 관서로 二진은 영북으로 출발하고 3진은 도성문안에 주둔하고 있었다.

성안에 있는 왜적은 피난간 백성과 경기도 백성이 문안에 들어와 식량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고 잡히는 대로 죽였다. 이렇게 서울길이 막히자 유모는 고양군으로 가서 배이삭을 주어가다 방아로 찌어 끼니를 잇게 하였다.

어느날 우리는 고양군을 갔었다. 그때 유모의 동생인 거리개(件里介)가 그의 남편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 갈 것을 권유하였다.

이곳은 서울이 가까와 왜놈들이 노략질을 해가니 숨을 곳도 못되고 피신해야 한다고 하자 유모는 거리개말에 눈물을

삼촌집 노비인 무산득을 만났다.

9월 보름이 지난 어느날 밝은 달이 중창에 떠 있는데 곡성이 들려왔다. 노비 김동에게 사연을 물으니 노비 김동어미의 울음소리가 하였다.

김동은 지난 봄 영남지방으로 공출인부로 갔는데 몇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그 어머니가 잠이들어 김동이 죽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다.

얼마후 울음소리가 끊이고 꿈과 달리 김동이 돌아 왔다.

김동은 전의에 사는 귀세와 함께 각각 쌀 다섯말과 찰쌀을 팔을 돈 밥까지 소쿠리에 넣어 가지고 왔다. 온 집안식구는 이들 덕분에 다시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서쪽인지라 아직까지 왜적이 많으니 전의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두 노비가 말하여 우리일가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낮에는 왜적이 곳곳에서 나타나 노략질을 일삼고 행패를 부려 밤에만 험한 산길을 택하여 가게 되니 7-8정보밖에 가지 못했다. 늦 가을이 지나 날이 추워지고 있었다.

둘째형은 살길이 막히자 전의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유모가 모시도록 하여 서울에서 살면서 유모가 술과 떡을 팔아 끼니를 이어 갔다.

서울장안에는 10만의 명나라 지원군이 있어 사대부집안은 거의 없었다.

이때 삼촌댁에는 아계(李海山·영의정) 공께서 이조랑 경전이란분을 대동하고 와 있었다.

유모가 그 자제들이 글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저분들처럼 공부할 해하지 못하면 무퇴한이 되어 장차 가세가 큰 격정이라고 한탄하였다.

이과랑 아들인 후(厚)는 8천자 구(久)는 9천자를 깨우쳐 문장이라고 하니 이 어찌 얼굴을 들겠느냐고 하며 유모는 집안살림은 나 혼자 감당하겠으니 글 읽는 일에 점념하고 당부하였다.

## 난리통에도 선비들은 공부하다.

나는 문서관리 일을 맡고 있는 김광은이 글을 가르쳐 주셨다는 청에 사략(史略) 춘추전국(春秋戰國) 이상을 공부하게 되었다. 또 나라에서 신실한 교관 직에 계신 이문명교관에 사략(史略) 4권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 조선생략에서 학문과 법도를 깨우쳤으나 원악 타고난 성품이 밝지 못하여 뒤졌다. 그러나 유모의 뒷바침과 정성에 어긋날까 보아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이렇듯 어찌 내유모의 정성을 잊을 수가 있으랴...

유모는 계축년 6월 20일에 나서 정축년 4월 2일 세상을 떠나니 85세를 일기로 고양군의 부모를 모신 묘 아래에 모셨다.

## 유모는 85세를 일기로 고양군에 묻히다.

유모의 은덕은 나에게 잊을 수가 없기에 더욱 슬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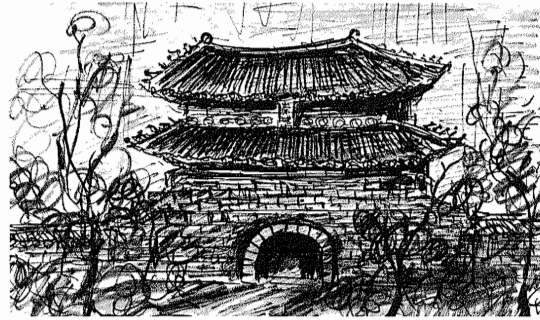
나는 고양군에 묻힌 유모를 찾아 부모와 같이 제향을 드리고 자손들에게도 받들어 모시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슬픔은 지워지지 않는다.

유모는 학식은 없지만 부지런하고 정성스런 충정은 누구와 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들을 다시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깊고 인자하며 후덕한 덕이 주변사람들에게 스스로 느끼게 한 영향이라고도 생각된다.

이처럼 노비들이 파산당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끼친 영향은 우리집안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닐까...

유모의 일생사적은 나의 붓으로서는 능히 전부기록할 수가 없지만 그의 뜻을 조금이라도 기록하여 후세에게 전한다.



## 임진란 때의 서울장안은 군인으로 딱차

전의에 도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유모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다. 전의에는 논밭이 있었으나 불이 되어 식량은 떨어지고 농사철이 되었지만 손이 모자랐다.

어머니는 한탄만 하고 계시었다.

5남매를 낳으신 어머니는 굶게 자란 분이어서 몸이 약하였다.

5남매 중 큰형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고 둘째 형은 양자로, 세째와 나는 아직 어렸다.

난리통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신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병환이 더해 갔다.

유모의 살림으로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가 갑오년 봄에 3형제가 같이 전염병에 걸려 생사판가름길에서 헤매게 되었다. 그러나 유모는 정성을 다해 간호에 전념하였다.

식량은 다 떨어지고 구걸할 형편도 되지 않아 유모는 썩과 솔나무 껍질을 방아로 찌어 쌀과 섞어 떡을 만들어 집에 다 팔아 겨우 연명해 갔다.

다시 정유제란이 일어났다. 우리는 둘째 형을 따라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 왔다.

소문을 들으니 명나라 장수 양동산과 허생 등이 관군과 함께 직산에서 싸워 크게 이기자 들은 물건을 살펴본 후 가버렸다. 쓸어졌던 유모는 허리 띠를 풀어 상처를 싸매고 쌀을 다시 이고 실리쯤 갔을 때

홀리며 7년동안 내 젓을 먹여 키운 아이를 어찌 버리고 가겠느냐하고 거절하였다. 거리개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형님 말씀이 그와같이 나도 또한 형님을 죽는 곳에 놔두고 홀로 나만 살 수 있겠느냐... 상전내는 먹을것만 보내주고 어린이와 헤어지라고 하자 이말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상의하려다가 참아 말을 맺지 못하고 동생이 강화도로 들어가 가서 먹을 식량도 못 구했으니 다시 가서 식량을 구할까 한다고 하였다.

## 적에게 칼맞고 쓸어진 유모는 나를 감싸줘

고양군으로 되돌아온 유모는 거리개를 부둥켜 안은 채 통곡하였다.

거리개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쌀과 간장 몇사발을 주었다.

식량을 이고 되돌아 오는 중 구현(駒峴)에서 왜적을 만나 유모는 제발리 나를 감싸고 땅바닥에 엎드렸으나 왜적은 칼을 뽑아 유모를 내리 쳤다. 다행히 유모는 두들겨 깨입은 옷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한 치 정도의 상처만 났다. 왜적들은 물건을 살펴본 후 가버렸다. 쓸어졌던 유모는 허리 띠를 풀어 상처를 싸매고 쌀을 다시 이고 실리쯤 갔을 때

## 집안전설 찾아

### 打愚어른이 세운 四觀亭 지금 그이름 따 觀亭里로

忠南 燕岐郡 全義面 觀亭里는 시조의 15세인 文穆公(打愚) 어른의 후을 모신 雷巖祠가 있는 곳이다.

이 雷巖祠에는 지금도 打愚公의 遺物과 文集資料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

打愚公은 1689년 西人 宋時烈 등이 실각되고 南人이 집권한 己巳換局 때 吏曹參判으로 투옥되어 天安獄에서 옥사(1690.1.19)한 어른이다.

이때 두아들(서자)과 몸종이 杖死당하고 아우인 農齋 翊 어른 마저 長興에서 獄死하는 시련을 겪었다.

獄死한지 5년후 복판된 공은 백년이 지난 純祖13년(1813년)에 文穆의 謚號를 받았다.

教旨 嘉慶大夫司憲府 大司憲 贈 嘉慶大夫 吏曹判書 兼 知義禁府事 成均館祭酒 五衛都總府 都總管 李翔 贈諡 文穆公者

道德博聞曰文 道德執義曰穆 嘉慶18年3月

칠십평생 공은 文穆謚號 教旨가 말해 주듯이 德과 義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觀亭里에는 지금도 四觀亭이 있는데 이 亭은 打愚公이 건립한 것으로 打愚公을 중심으로 많은 선비와 시인문객이 찾아들던 곳으로 이 四觀亭의 이름을 따서 이마을의 이름이 觀亭里가 되었다.

牛峰 李氏가 이곳과 인연 맺기에는 지금도 大朴골로 불리워 지는 순천박씨네가 살던 곳으로 나라에서 打愚어른께 하사된 후부터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금은 종중산남 남아 打愚公을 비롯한 그 후손들의 묘가 많다.

打愚어른의 후을 모시고 있는 雷巖祠는 碑院으로 1818년 贈諡되었으나 3번 廢院되었으나 1890년 다시 再建되었다. 1979년 후손인 功茂, 元茂씨등이 改築하여 文穆祠로 命名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祠堂은 宗孫인 功茂씨가 매년 음력 정월 열아흐레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 이때면 학계나 대중회 종무위원들이 참석한 다.

유봉이씨 집안에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어른은 打愚公, 歸榮堂, 陶庵 등 세 어른뿐이다. (元茂씨 제공)

# 문중 가훈 뽑혀 전시

## 서울시교육위 주최 교훈·가훈 전에서

지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중앙청 지하철역 전시장에서 개막되었던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훈·가훈 전시회에서 문중가훈이 뽑혀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시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교훈과 학생들 집안의 가훈을 모집하여 응모된 작품 중에서 엄선된 140점(교훈 70·가훈 70)이 전시되었는데 전시되었던 문중가훈은 樂苑(종무위원)씨의 2남

상준(茂德 양평중 2학년)군이 집안에 있던 가훈 편액(丙天씨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한 것이다.

그런데 문중가훈은 17대 도암선조께서 쓰신 충헌공 행장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해 찾아낸 것으로 집안의 가훈은 忠厚勤慎 즉 성실하고 인자하고 조심있거라는 폭넓은 뜻이 들어있는 작품이다.

가훈으로 밝혀진 충헌공행장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죽 충헌공께서는 늘 자제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 집안의 가훈은 충후근신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도암의 충헌공 행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가훈은 적어도 1629년이전에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 온 가훈임이 증명된다.

그런데 일취정(翻·1629~1688)선조는 우의정의 벼슬과 忠憲의 시호를 받으신분으로 도암선조의 조부가 된다.

한편 이를 계기로 대종보 편집실에서는 가훈이 필요한 일가를 위해 회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문중재산 관리보호에 앞장 병호 종무위원의 집념으로

문중재산의 관리소홀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려던 문중재산을 뜻있는 자손의 활동으로 되찾게 되어 점차 대종회의 운영방침인 재산관리보존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즉, 1985년에 도암공 문중종당을 되찾은 것을 효시로 지난 12월 22일에는 14대 만해당(有謙, 증 영의정) 문중 전담 1천5백6평을 丙鑄(종무위원)씨가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문중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승소판결된 재산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천리 354-1, 3번지에 위치한 논으로 국유재산이 되기 전 후손인 훈(대전)씨를 비롯한 논산광주 등지에서 거주하는 후손 5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관리소홀로 국유화되었는데 그 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현재 관리인인 문제환(64세)씨가 관리권을 이용 소유화 하려던 것을 병호씨가 지난 83년 선조시제시 참석하였다가 이 사실을 알고 용인 군청 등 관계기관 및 관련자를 찾아가 하면서 조사한 결과 1953년에 분배증지조치에 따른 재 소유권 등기를 취하지 않아 국유화 되려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해시키고 9개월동안 사비를 써가면서 소송절차를 마친 후이 수반(회장)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만회당 문중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 제2회 전국 무등 예술전에서 특선 당선 시예가 丙天씨 작품

지난 12월 8일 丙天(53도유사)의 시예작품 쌍명제 이인노의 「漫興」한시가 제 2회 전국 무등미술대전에서 특선으로 당선되었다. 병천씨는 외국어대학 중국어 출신으로 공무원 생활을



### 얼굴 옹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라

心堂 丙璘 변호사

유교사상 중 맹자는 仁·義·禮·智를 중요시하였다. 이 네가지 단서는 측은한 것, 부끄러운 것, 사양하는 것, 옹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는 마음을 뜻한다. "법은 백이오 권력은 흑이다"라는 心堂 법치주의 사상의 주장은 한때 행동화되어 민주수호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또한 이 정의로움으로 인해 대단한 유흥과 수차례 옥고가 치렸으나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아 이 사실로, 재야 인권변호사란 별명이 붙어 더욱 유명해 졌다.

특히 사회의 밑바닥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호소를 수없이 들어가며 약한 편에서서 함께 가슴아파하며 과감하게 불의와 권력에 대항해 나가는 의지엔 그 누구도 따를 수가 없다. 바삭바삭한 카랑카랑한 음성엔 인색하고 쌀쌀한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상하고 정이 넘쳐 흘러 주위에서 화제가 되기도 한다.

한문학, 현대문학, 음악, 미술분야의 상식을 넘는 박식함에는 남들이 모르는 맛과 함께 노신사의 풍격을 찾게 한다. 옹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心堂어른의 좌우명은 집안의 자랑이다.

重要略歷 京畿道 楊平에서 出生. 30년 京城第一高普卒 31년 京城師範講習科卒 40년 朝鮮辯護士試驗合格 42년 辯護士開業(現) 75년 서울辯護士協會副會長·會長 63년 中央選舉管理委員會副會長 警察行政改革審議委員會委員長 法令整理委員會委員 歸屬財產訴請審議會委員 64. 大韓辯護士協會會長(13대, 16대) 司法大學院 講師 71~75년 民主守護國民協議會 代表委員 著隨想集 "法속에서 人間속에서"

編註: 이 글은 7월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중 방문하여 쓴 글이다. 삼가 명복을 빌니다.

하면서 서예를 공부하다가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서예활동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 문중일에도 종무위원으로 헌신하여 지난 11월 2일 대종회때 도유사로 선출되어 대종회 주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전국 무등 미술대전은 국전과 같은 수준으로 미술계 인사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대전으로 1985년 제 1회 때부터 미술계에서 관심있게 출발하여 이번이 제2회 때로서 신인발굴에 권위있는 등용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등미술대전 전시는 광주에서 지난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전시되었다.

### 게시판

- 동정 ▲丙璘(고문, 학술위원로 회원) 86.12.8 韓國儒學史略(아세아문화사) 발간 ▲東寧(명예회장·성균관대학 재단이 사장) 86.10.15 봉명그룹 창립제39주년기념행사주제 ▲丙晴(부회장·동국대학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재취임·86.9.20 東丘문화회 발표회 주관 ▲丙朝(회원·중앙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취임 ▲昇茂(회원·봉명그룹부회장) 청년유도회 회장취임(86.9.7) ▲壬九(회원·황성군 성남학구 단위노회 회장) 황성군 종친회 지역단위 구성 ▲丙敎(회원·신흥증권 주식회사 여의도 지점장) 인사차 ▲茂鴻(회원·법안농장대표) 대구지구 종친회 회장인사차 ▲範瑞(회원·대전전용전국국전력실장) 상경인사차 ▲壽寧(회원·유도회 비안지부장) 상경인사차 ▲丙錫(종무위원·삼진공업대표) 종무위원 신임인사차 ▲泰寧(종무위원·유미무역(주) 사장) 신임인사차 ▲丙玉(부회장·사법서사) 1·10 강남목욕예식장에서 손녀결혼식 ▲茂學(유사·안국화재정보대표)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부고 ▲鳳九(고문 안국화재해상보험신화대표) 86.10.24 실인 안동김씨별세 장지 충남 천원군 천안공동묘지 ▲元茂(종무위원·성원전자 대표) 86.10.20 친선장지 충남 남원군 전의면 선영 ▲相武(전 국회의원) 2.12 별세 발인 2·16 경주시 자택에서 시제 ▲86.11.4(음 10.2) 청백리(淳)공 문중시제행 서울특별시 공평동 산1번지 ▲11.16(음 1.15) 가호당(承德)공 문중시제행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11.16(음 10.15) 통덕랑(윤)공 문중시제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 석원동

### 東苑 元九 전 회장 80세로 별세 인권변호사 丙璘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장례식업무

지난 11월 24일 元九 전 대종회 회장(5대)이 8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고 원구 전 회장은 一堂선조를 친히 뵈은 마지막분으로 중학시절부터 대종회에 참석하여 해룡(전 대종회 회장) 어른을 비롯한 당시 문중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평생을 문중일에 몸을 바치신 분이다.

감리교 장로이기도 한 東苑은 자상하면서도 분명하고 분수에 맞는 행동을 처세의 신조로 삼아 왔다.

105만 나이로 장수했던 조권사 빈도솔하의 외독자로 자라난 東苑은 조선조 성리학자 도암선조의 직손으로 미망인 千已得여사와의 슬하에 2남 5녀를 두고 있다.



故 東苑 元九 어른



심당 병린 어른



유소가운데에서 열린 장례식 사진

또한 대종회 제 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연임되어 노령에도 지방 곳곳의 문중을 방문하는 등 종친간 친목에 앞장서왔다.

특히 대종회보 창간을 주도하여 신문을 통한 종친간의 상부상조 및 생활의 가치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뜻을 폈다.

1919년 배재고보를 나와 한성은행, 三井物産을 거쳐 평성광업(주) 전무이사, 부산철광(주) 상임감사, 부사장, 부산파이프 판매(주) 사장, 해덕철광(주)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과 부산상공회의소 이사, 부산기독교 방송국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실업계의 원로로서 말년에는 학교재단 배화학원 이사장으로 육성사업에 몸담아왔다.

1985년 10월 26일 신병치료 및 병수를 위해 회직직을 사직하고 미국으로 떠났었다.

### 심당 병린옹 잠드다 용인공원묘지에 안장

인권변호사로 불려 온 전 대변호사협회장 丙璘 변호사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은평구 불광 2동 105의66자택에서 숙환으로 향년 75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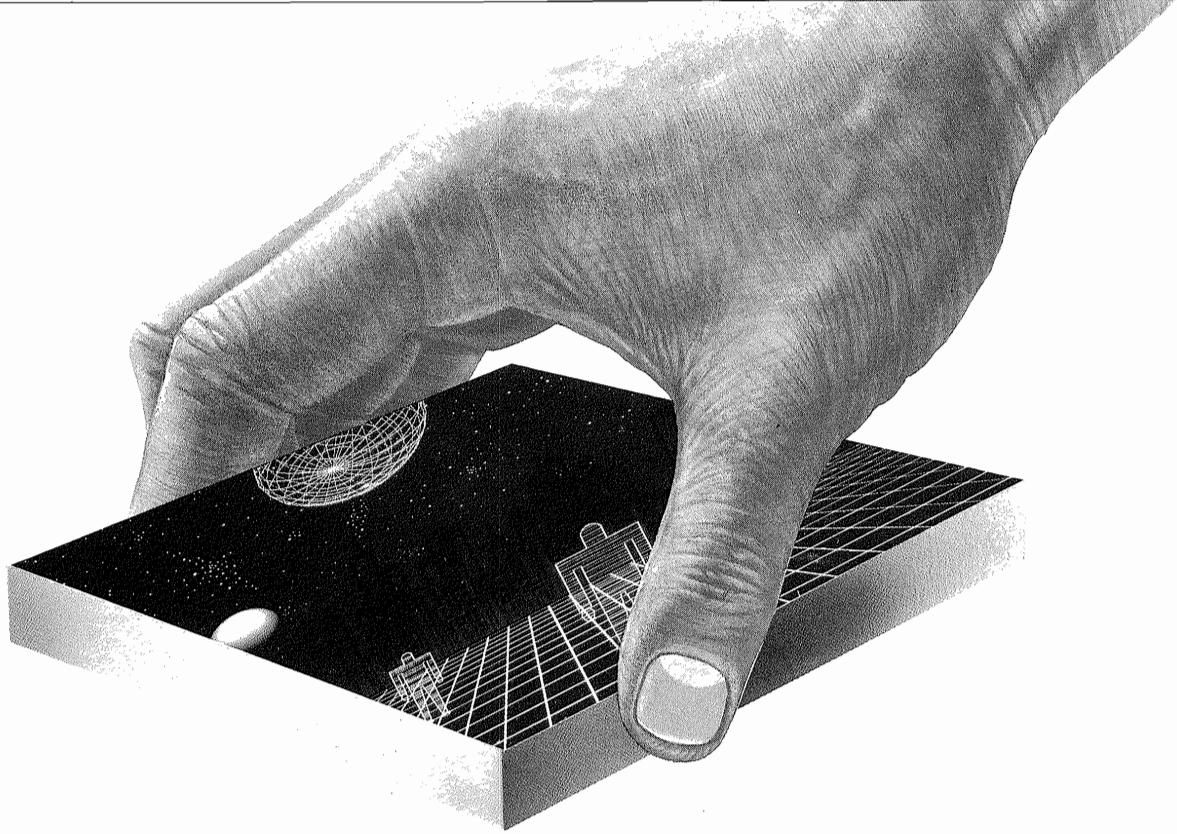
이변호사의 장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치러 용인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유족으로는 泰寧(48)씨 등 4남 3녀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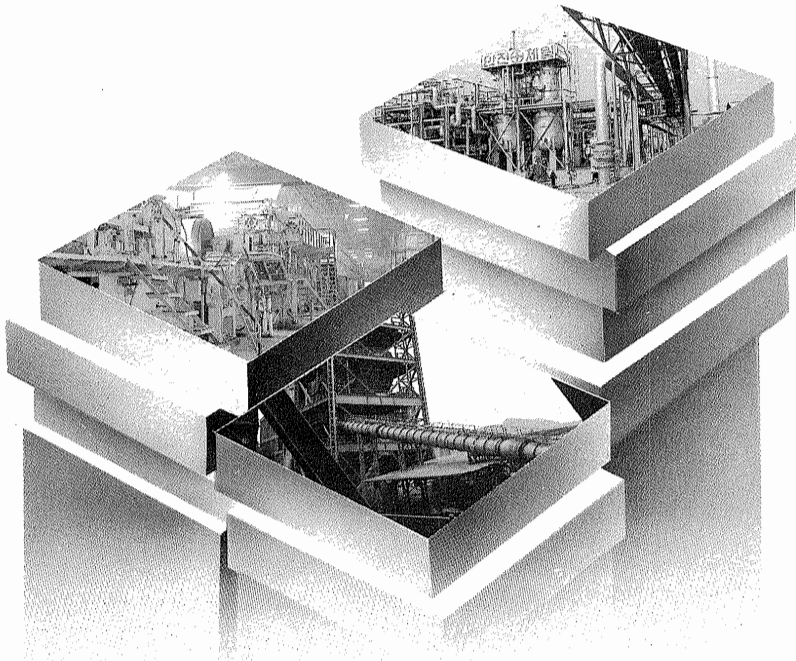
### 봉구부회장실인 안동김씨도

지난 10월 24일 鳳九 대종회 부회장실인 안동 김씨가 숙환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C동 606호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김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출신으로 5남매를 두고 있는데 10월 26일 천안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 성실한 마음들이 모여 신뢰의 금자탑을 쌓고 있습니다.



후세에까지 물려줄 금자탑——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큰소리로 외치거나, 급히 서두른  
다고 하루아침에 금자탑이 쌓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록 빛은 안나지만, 봉명은 금자탑  
이 우뚝 설 수 있는 터전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한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업에서부터 금속, 기계, 무역, 축산,  
도시가스, 에너지, 제지, 식품, 육영사업에  
이르기까지——  
봉명은 최선만이 최고를 만든다는 일념  
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신뢰의  
금자탑을 하나하나 힘차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 봉명

계열법인 : (주) 봉명, 아세아 시멘트공업(주), (주) 도투락, 봉명산업(주), 동창실업(주),  
동창제지(주), 대한도시가스(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학교법인 문경학원.